

제1주제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의미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의미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I. 서론

최근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조작적 정의나 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한 고민으로써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연구의 활발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서양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행복 측정치를 대부분 변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의 정서가 반영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서은국 외, 2010). 따라서 충남의 여건과 실정이 고려된 충남 도민에게 적용가능한 행복지수의 개발과 이를 통한 충남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남 도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조작적 정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도구를 본 연구를 통해 만들고자 한다. 특히, 충남 도민의 행복지수 측정과 더불어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의 선정에 있어 충남 혹은 도내 시군 단위에서의 실현가능한 정책대상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수혜대상인 도민의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이러한 영역의 선정과 해당 영역별 변수들의 선택 및 측정, 그리고 정책방향의 설정으로 요약된다¹⁾.

II. 행복의 개념과 이해

1. 행복의 개념

표준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복된 좋은 운수”이다. 둘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이다. 행복(happiness)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1)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전략과제로서 본 발표자료에서는 영역 및 지표선정을 위한 지표 풀(pool)의 구성 단계까지만 작성되었다.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 상태를 특정 짓는 안녕(安寧)의 상태”이다. 학자들은 행복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Veenhoven(1991)의 정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주관적 안녕을 크게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반적인 개념에는 생활만족, 욕구충족, 그리고 기쁨수준을 포함시켰고,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 자긍심, 그리고 통제신념을 포함시켰다(정동섭, 2002; 김승권 외, 2008 재인용).

행복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척도는 국내총생산이다. 세계은행은 매년 국내총생산을 발표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은 경제지표로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김윤태, 2010).

행복을 측정하는 경제학적 접근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74년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틀린은 국내총생산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행복감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Easterlin, 1974).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73~2004년 동안 실질임금은 2배로 증가했으나, 행복감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듯하다(김윤태, 2010; 이희길, 2012).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가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의 도입이다. 이는 자연히 ‘좋은 삶(good life)’ 혹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다양한 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삶의 질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크게 두 가지의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만족도에 대한 측정값이다. 기존의 ‘삶의 질’ 접근법에서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그 조건에 주목하여, 전체 사회차원에서는 중요하게 고려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삶의 질’ 접근은 기존의 GDP로 대표되는 경제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형평, 공평, 자유, 사회적 유대와 같은 전체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희길, 2012).

이렇게 행복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성공적인 삶’, ‘좋은 삶’으로 대체되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능가하게 되었다. 행복을 포괄적 의미에서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객관적인 ‘성공적 삶’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욕구충족의 논리를 벗어나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는 궁여지책인데, 두 가지 발전 경향의 종착점을 비교해보면 하나의 일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개인의 삶이라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면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삶 또는 좋은 삶,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만족이 바로 그것이다(박성환, 2009).

2. 행복에 대한 이해

1) 행복의 사회학적 이해

사회학에서 행복에 관해 주로 다루는 지표는 교육, 가족, 시민참여 등 주로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원동력 및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며

개인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성취는 좋은 직업과 고소득, 사회적 계층의 상승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성취는 직접적으로 직업과 소득으로 연결되며,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은 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으로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및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며(Trewin, 2001) 이웃공동체와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결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과 돌봄 정도, 화목한 가족관계의 유지는 개인이나 사회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가족 이외에도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신뢰,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적 참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이다.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참여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와 여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가의 개념은 산업화 이후 집을 떠나 휴식이 없는 노동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발생하였다.

안전 영역은 사회가 범죄와 재해,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범죄나 전쟁, 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불안감은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안전한 사회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행복의 심리학적 이해

정신건강(mental health)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남용 등 다양한 정신장애(mental illness)를 경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며, 반면 정신장애로 이환(罹患)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에 대한 전통적 견해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신개념을 설파한 Keyes(2002, 2005b)는 진정으로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과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며,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다 적게 느끼는 사람이다.

‘심리적 웰빙’을 구가하는 사람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내면적인 기준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하며, 친밀감을 느끼면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늘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 인생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주관적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의 선발주자에 해당하는 Diener

등(1999)은 주관적 삶의 질이 크게 두 영역의 세 가지 상호 독립된 차원들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하나는 정서적인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인지적인 영역이다.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호 독립적인 두 차원 즉, 즐거운 감정(pleasant affect)과 불쾌한 감정(unpleasant affect)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되는데 상호간에 상당히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소위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접근(bottom-up approach)이라 하여, 삶을 구성하는 하위 개별 영역들에 대해 만족하게 될 때,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및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한편, 또 다른 접근은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접근(top-down approach)이라 하여,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에 따라 동일한 조건일지라도 만족도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외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성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기 존중감, 외향성, 낙관적 성격, 자기 통제감과 같은 성격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iener & Emmons 1984; Diener et al., 1999; 김명소·한영석, 2006 재인용).

이처럼 행복의 심리학적 측면은 주로 주관적 만족과 관련된다. 주관적 만족은 다른 영역들(사회학, 경제학, 환경학 등)에서 살펴본 객관적 지표들과 달리 각 개인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나타내며 평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의미한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지표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객관적 지표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적 측면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이외에도 주관적 측면에서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아울러 각 영역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주관적 측면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서은국, 2012).

3) 행복의 경제학적 이해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라 행복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요소로 사람들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긍정적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미에서건 돈, 소득, 부와 같은 경제적 요소들일 것이다. 그런데 현대 경제학자들은 부가 증대해도 일정 수준이 되면 부와 행복간의 상관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최항섭, 2009).

경제적 조건에서는 경제적 활동 및 자원에 대한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원 획득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연결망 및 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Trewin, 2001). 일자리가 없는 개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자리는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의 여부와 아울러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Trewin, 2001).

4) 행복의 환경학적 이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는 사회지표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지 않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그 중요도가 높아져 환경 지표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후변화나 생태계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자연자원의 고갈 등이 문제시 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정도와 자연자원의 보호, 생태계 유지 등이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환경은 환경관련 질병발생 등으로 건강과도 관련되며,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 발생, 자연자원의 감소, 생태환경 유지 등과 관련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환경은 단순히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적절한 기후와 쾌적함 뿐 아니라 자연자원의 생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행복과 삶의 질 측정사례

1. 행복측정에 대한 접근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공유하면서도 이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행복을 보는 시각과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단순히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고유의 독특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기분이 좋은 감정인 쾌락, 고통, 불안이 없는 상태인 불쾌감의 부재, 만족스러운 삶이라 느끼는 만족감에 기인한다고 한다.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것에 비해 값진 삶(virtuous life)과 좋은 삶(good life), 행복한 삶(happy life)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간다. 역사적으로 행복에 대한 초기 접근은 철학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경험적 행복에 접근하고 있다. 경험적 접근은 크게 생물학적 접근, 사회적 접근, 긍정심리학적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철학적 접근은 행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기원전 35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인생에서 그 자체로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행복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 혹은 객관적 상태가 아닌 가치로운 주체적 행동이다.

생물학적 접근은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호르몬이나 약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경계의 물질이 정신적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약물을 통해 정신적 즐거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연구 등이 있다.

긍정심리학은 다양한 학문을 모두 아우르는 학문으로 행복에 있어 성격, 기질 등과 같은 내적

요인만을 강조한 접근과 소득, 물질 등과 같은 외적 요인만을 강조한 접근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둘 모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행복이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 ‘행복’의 개념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²⁾. 그 하나는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으로 맞추는 반면, 다른 접근법은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한다(Noll, 2004).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측정값이다.

객관적 지표의 옹호자들은 사회지표는 사회정책을 안내해야 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보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하고 이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지표는 정책과정에 왜곡을 가져오고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는 비합리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Veenhoven, 2002).

객관적 지표는 실제 조건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었지만 복지 또는 행복의 고려사항으로 적합한 차원들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좋고 나쁜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합의를 명료하게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충남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한 논쟁에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객관적인 조건과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의 시각을 함께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객관적 지표와 사회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표 1〉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최종목적	객관적 삶의 수준 향상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 제고
평가주체	전문가	일반국민
장점	정책활용/시계열 비교 용이	국민의 다양한 견해 반영/실제 체감 측정
단점	심리적 측면 간과/측정의 신뢰성	열망(기대)의 수준에 영향

자료 : 이희길,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워크숍 발표자료 2012. 2. 25

2)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06, pp 14-18 재구성

2. 행복과 관련 지표

① 행복지표

기존의 행복측정 관련 지표들은 UNDP 인간개발지수, 행복한 지구 지수(HPI, The Happy Planet Index), 행복공식(영국BBC 방송),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NH), 행복도측정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혼합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표들은 행복공식, 행복도측정조사, 국민총행복지수 등이며 객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표는 객관적 UNDP 인간개발지수 등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지구 지수 등이다.

기존의 행복관련 지표는 상당수 국가별 수준이나 순위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며 특히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② 사회지표

1960년대 들어 개발되기 시작된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가치체계 및 개발개념의 변화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수준에서의 사회복지나 삶의 질 같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에 관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ECD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국가적 평균치를 나타내어야 하며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 세부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것 사이의 균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균형이란 규범적인 고려사항, 해명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프로그램 관찰과 평가 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에 포함되는 사항은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보건, 질병, 자연환경, 소득, 문화예술, 참여, 공공질서 등에 관한 정보이다.

③ 삶의 질 지표

1991년-1992에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군(WHO)의 주관 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회의에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삶의 질이란 ‘자신들의 문화 및 가치체계의 관점과 그들의 목표, 기대, 표준 및 관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위(위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광의적인 접근이며 개인의 육체적 건강, 정신상태, 독립정도, 사회적 관계, 신뢰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삶의 질이 문화적, 사회적 및 환경적 부문에 내재되어 있는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타나내는 것이다.

삶의 질 또는 생활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는 경제, 사회, 환경지표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건, 소득, 고용, 생산성, 교육, 교양, 자유, 개인주의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지표체계는 6가지 영역(물리적, 심리학적, 독립성,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측면을 강조하는 삶의 주관적 지표체계라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은 100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 간편척도의 경우 26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는 4개의 항목(신체적 건강, 심리적, 사회적 관계, 환경)과 24개의 하부척도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④ 환경 질 지표

환경 질 지표(Quality of Environment Indicators)는 환경상태의 측정을 위한 일련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환경 질 지표는 1970년대 초 도시환경문제의 악화에 따라 환경지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78년 OECD의 도시환경지표개발위원회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사회지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환경지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지표 개발의 주요대상은 공기 및 수질오염의 측정, 위험물질의 사용한도 측정, 폐기물처리, 토지이용과 토양보전, 자원고갈, 야생동물의 관리 등 이다.

⑤ 지속가능 발전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로 발달하여온 사회의 성장이나 발달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흔히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복지를 만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본전제는 현상에 대한 기술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표체계를 논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범위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며 환경, 자원, 생태,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제도, 정치,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보는데 있어 단순히 환경의 질 변화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수용능력 변화에 대한 관찰을 보다 중시한다.

3. 행복 및 관련 지표의 적용사례

1) 특정 국가에 대한 사례

①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LI)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는 일본 국민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 국민의 의식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1992년부터 제안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PLI는 개인 생활의 풍부함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기본분야에 더하여 개인의 여가와 자유시간 활용 측면을 파악하여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관계의 8개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안전, 공정, 자유, 쾌적 등 4개의

평가축을 설정해 각 활동영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영역별 중요도에 따라서 지표구성을 하였다.

② 캐나다의 웰빙 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 웰빙 지수(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CIW는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진보의 의미’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범국가적 지표개발 프로젝트로서, 1999년부터 캐나다 지도자, 전문가, 대중 등 각계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CIW는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건강(Health),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 문화(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Time Use),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덟 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다시 수십 개의 변수들로 측정된다. CIW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한 지수와 각 하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한 지수(Headline indicators)의 구축하고자 한다.

③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조사하고 있는 국민총행복지수는 경제적인 고도성장이 아닌 전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탄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행복지수라 할 수 있다.

이 GNH라고 하는 개념의 아래, 부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촉진(the promotion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 문화적 가치의 보전과 진흥(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 자연환경의 보전(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 바람직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the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국민총행복 지수는 부탄인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시간의 활용(Time Use),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문화·전통(Culture),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환경(Ecology), 생활수준(Living Standard), 거버넌스(Governance) 등 9개의 규범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몇 가지 지표에 의하여 평가된다.

④ 홍콩의 삶의 질 지수(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홍콩의 삶의 질 지수는 홍콩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삶의 질 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의 21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지표들은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지수계산은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합계 값을 100으로 설정하여 연도별 변화율을 파악한다. 21개 지표 중 6개 지표(스트레스 지수, 삶의 만족도, 언론비판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정부수행 지수, 현재 경제상황 지수)는 연구자들에 의해 측정되어 산출된 지표이다.

2) 국가 간 비교에 대한 사례

①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는 170여개 UN회원국을 대상으로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은 평균수명, 교육정도, 교육기회, 1인당 GDP 등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다. 인간개발지수의 구성은 세 가지 차원의 산술평균으로 세 가지 지수를 더한 뒤, 3으로 나누어 산출된다³⁾.

② OECD의 삶의 질 지수(How's Lif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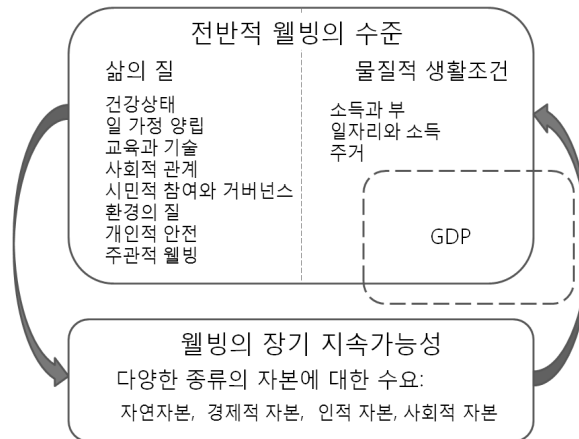
OECD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사회발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등 각국의 웰빙 수준을 개념적 단계가 아닌 실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항목별 및 전체 순위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OECD의 How's Life에서는 크게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세 축으로 하는 틀을 따르고 있다. 물질적 생활조건 및 삶의 질은 현재의 웰빙과 관련된 반면 지속가능성은 미래의 웰빙과 관련된다. 웰빙측정과 관련 접근방법은 가계 및 개인에 중점, 웰빙결과에 집중, 웰빙의 분포에 관심, 웰빙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 모두 고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질적 생활조건은 3개 영역인 소득과 부, 직업과 임금, 주거이며 삶의 질 8개 영역은 건강상태, 일과 여가생활 균형, 교육과 기술, 거버넌스, 사회적 관계, 환경의 질, 신변안전, 주관적 웰빙 등이다.

3) $HDI = 1/3(\text{life expectancy index}) + 1/3(\text{educational index}) + 1/3(\text{GDP index})$.

〈그림 1〉 OECD How's Life의 개념적 프레임



④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내리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삶의 질 척도(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라는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WHOQOL은 100개의 세부문항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원적인 측정도구이나 지나치게 문항이 상세하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해 단축형인 WHOQOL-BREF도 개발되어 있다.

⑤ EIU의 삶의 질 지수(EIU's Quality of Life Index)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서베이 결과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의 구성을 위하여 74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 서베이 점수를 사용하였다.

4. 행복 및 관련 지표의 연구에 대한 검토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표산출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산출을 위해 사용된 개별지표들이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는 적절한지 등의 문제이다.

국제기구와 외국의 행복지수들은 중점을 두는 영역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활용한 지표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대표성 있는 지표를 활용하였는가에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합리적 선정이 중요한 과정이다.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복지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과 평가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변화양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국내연구 검토

한국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개별연구들로 일회성 연구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범위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본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표의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이현송(1997)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측정내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연구의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질문항목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② 국제연구 검토

국제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간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통계자료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의 구성에 있어 조사기관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측정기관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사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나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지표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국가별 연구

국가별 연구는 행복지수 보다는 삶의 질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비교보다는 그 사회의 시계열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그 사회의 특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주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주관적 지표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다. 영역의 구성에서 있어서도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 사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OECD에서도 국가별 행복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지표는 아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수의 개발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참고된다.

④ 개별 연구

개별 연구들의 내용은 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되고 있으며 측정내용 또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 자아성취감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항목으로 국가 또는 지역의 행복지수에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행복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가에는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지표 및 측정을 위한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복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표들의 영역구분 방식은 대부분 기존 연구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의 결정요소는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사회관계 측면, 생활환경여건, 자아성취와 만족감, 교육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측정지표의 구성에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결과 측정지표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연구 및 활용목적에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사용방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표 2〉 선행연구의 영역구성과 내용

지표명	측정구분	지표구성		영역내용
		영역	지표	
UNDP의 인간개발지수	객관적	3	4	평균수명/교육수준/생활수준
EIU의 삶의 질	객관적/주관적	9	9	물질적 안녕/건강/정치적 안정성/가족생활/공동체생활/기후/직업안정성/정치적 자유/성평등성
NEF의 행복한 지구 지수	객관적/주관적	3	3	평균수명/생태학적발자취/삶의 만족도
WHO	주관적	6	100	신체적 건강/심리적 측면/자립성/사회관계/환경/종교 및 신념
캐나다 웰빙	객관적/주관적	7	37	생활수준/시간사용/건강/생태계/교육/공동체/시민참여
부탄 GNH	객관적/주관적	9		심리적웰빙/시간활용/공동체활성화/문화전통/건강/교육/환경/생활수준/거버넌스
호주 웰빙	객관적/주관적	9		인구/가족과 공동체/건강/교육/직업/경제자원/주택/범죄/문화와 레저
행복공식	주관적	3	4	개인적 특성/생존욕구/고차원욕구
한국인의 삶의 질(이현송)	객관적	6	30	소득/보건/교육/노동/문화정보/형평
행복지수 공식개발 (김명소 외)	주관적	16	97	경제력/사회정치문화환경/외모/건강/자녀성정/부모 및 친지관계/배우자의 사랑과 신뢰/타인과의 관계/사회적 지위/자기수용/자기개발/자립성/여가/긍정적 인생관/사회봉사/종교
서울시민 행복지수	주관적	8	29	경제/문화교육/복지/사회안전/생태환경/생활환경/시민시정/공동체
신국민생활지수 (일본)	객관적	8	204	주거/소비지출/근로/양육/보건의료/여가/교육/교제, 관계
홍콩의 삶의 질	객관적/주관적	3	21	사회와 문화/경제/환경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고 있고 비교가능성과 정책활용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두 측면 모두 중요하다. 객관적 지표의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주관적 만족도나 감정은 측정될 수 없기에 한계가 될 수 있지만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 등 일부 객관적 지표는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로 간과할 수 없다.

〈표 3〉 선행연구 영역의 비교

	UNDP HDI	EIU 삶의 질 지수	NEF HPI	WHO QOL	캐나다 CIW	부탄 GNH	호주 웰빙 지수	한국인 삶의 질 지수	서울 행복 지수	일본 PLI	홍콩 삶의 질 지수	OECD 사회 지표
인구												
가구/가족		0					0					
소득/소비	0	0			0	0	0	0	0	0	0	0
노동		0					0	0		0		
교육	0				0	0	0	0	0	0		0
보건	0	0	0	0	0	0	0	0		0		0
주거/교통							0		0	0		0
정보/통신												
환경		0	0	0	0	0			0		0	0
복지									0			
문화/여가					0	0	0	0	0		0	0
안전							0		0			0
정부/참여		0		0	0	0			0	0		

자료 : 황명진 외, “행복지수의 개발”

IV.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영역과 지표의 선정(안)⁴⁾

1. 영역의 선정

1) 생활기반여건

① 행복에 있어 생활기반여건이 왜 중요한가?

생활기반여건이 중요한 이유는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시대적인 변화추세에 따라 나타난 도시 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량생산시대의 패러다임이 남긴 지역의 문

4)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 제시된 지표는 향후 워크숍 및 자문 등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5) 우리나라의 도시는 양적인 개발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물리적인 요소를 투입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에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와 같은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혁신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장기적이고 거대한 인프라(infra) 중심에서 미시적인 생활공간과 공적인 장소가 점점 중요해진 것이다. 충청남도는 민선5기 들어 자동차 중심, 경제 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도시(human city)의 개념을 주요화두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제점을 극복하고 다품종·소량 생산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남도민이 쾌적한 도시 및 마을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물리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기반여건은 충남의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② 어떻게 생활기반여건을 측정할 것인가?

생활기반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이다. 행복지수 측정을 위해 가능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키워드별(인본성, 공동성, 지속성, 안전성)·세부영역별(공동체, 주거, 교통, 공원 및 녹지, 안전, 기반시설)로 분류할 계획이다.

우선, 인본성(humanism) 영역에서는 커뮤니티 특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 및 가로환경 정비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중소도시의 읍 또는 면 지역은 해당 사군의 중심적인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주기적 또는 상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이용하므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간적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

둘째, 공동성(communality) 영역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의 동선에 맞게 공공편익시설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배치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밀착형 생활필수시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 활성화 정도와 보행자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측정한다.

셋째, 지속성(sustainability) 영역에서는 쾌적한 공원 및 녹지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거환경의 질이 지속가능한지, 소득과 연령·능력에 관계없이 주거선택의 가능성과 정주성이 높은 사회인지 등에 대하여 측정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성(safety) 영역에서 생활기반여건은 사회의 안전성 또는 위험성의 정도,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환경 등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2) 문화·여가

① 행복에 있어 문화·여가가 왜 중요한가?

문화·여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화·여가는 전통적으로 기본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대해 대비되는 것으로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개인이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고 주5일제의 확대로 다양한 문화·여가를 즐기려는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세계 1위, 여가경쟁력은 23위로 나타났으며, 관련 정책 또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화·여가의 향유가 개인의 행복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생활만족도에 비해 여가, 가족, 종교 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이동원, 2007).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삶에서 여가나 가족 등과 같은 일 이외의 삶의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인간의 생활에서 행복과 연관된 삶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없다면 개인의 행복은 반감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이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행연구들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면 행복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문화·여가 등 외적 요인의 비중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문화·여가는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② 어떻게 문화·여가를 측정할 것인가?

문화·여가 영역은 시간사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영역이다. 선행연구에 포함되었던 지표들은 여가시간,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권, 문화시설, 여가활동 및 시설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여가 영역의 행복 측정은 개인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화생활 또는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여가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여가 시간 등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만족도·중요도 등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였다. 둘째, 문화·여가 지표의 영역을 4개 영역(문화·여가 시간, 문화·여가 지출,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만족도·중요도)으로 단순화하여 향후 통계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 나열식 지표가 아니라 충남 도민의 행복을 고취시키는 방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3) 가족과 공동체

① 행복연구에서 가족과 공동체 영역이 왜 중요한가?

가족은 개인이 출생 후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이다. 모든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근본적 원천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원 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너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만족도나 부모 자식 간 만족도는 전체 삶의 만족도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가구형태(living arrangement)에 따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차이가 난다(이민아, 2010). 나이든 부모의 건강상태는 장기적으로 중년인 자녀의 경제적 상황과 삶의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윤석, 2011). 가족 영역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언제나 살펴봐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이웃공동체와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결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신뢰,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현대 사회는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고 가족이나 지역 등 1차적 관계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있다(Coontz, 1997).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삶의 질에서 공동체가 갖은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②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행복과 관련해서 가족 및 공동체 부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다양한 측면 중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직접인 관련이 있는 측면을 선정해야 한다. 가족과 공동체의 매 시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종합되어야 한다(Schneider, 1976).

또한 각 지표는 정책방향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Sen, 1985). 이를 위해 시계열적으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적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된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과 공동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돌봄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주요 기제로 파악한다. 한국인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받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이러한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사회지표는 “가족관계” “가족형태” “일 가족 양립”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사회적 신뢰” 등 중분류 범주로 구성한다.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가족과 공동체가 제공하는 물질적 및 심리적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은 어느 개인이든지 피해갈 수 없다. 이 때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고통과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주요한 원천이다. 사회적 지지는 친밀한 관계속 상호작용, 배려나 관심, 소속감 등 개인 간의 구체적 상호작용에서부터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모두 포괄한다.

4) 환경

① 행복에 있어서 환경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과도한 생산활동 결과에 의한 무기적 환경오염은 수많은 동·식물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는 3대 축(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발전)의 하나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인류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환경오

염은 광역성, 장기성, 탄력성과 비가역성, 상호관련성의 특징을 지니며, 피해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어 인간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하여 생태계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 도민은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공기 및 수질 오염, 폐기물 발생, 소음 등)는 인정하지 않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에 대한 체감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생활권의 선택과 행복지수를 적용하는데 중요하게 자리 메김하고 있다. 결국, 균형적인 환경은 도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서는 인류 존재를 유지하는 기본적 요소로써 환경오염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의 행복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② 어떻게 환경영역의 상태를 측정할 것인가?

환경지표의 측정에 있어서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 공통된 목적 등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표의 증·감이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와 이 지표들의 신뢰성(reliability)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지표의 환경 질에 대해 영향이 분명한 방향을 보이는 즉, 지표의 변화에 따라 환경이 개선 혹은 악화되는 명확한 관계를 갖는 지표를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환경의 도민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료보다는 한국적 현실의 특성과 함께 충청남도 환경특징이 반영되도록 측정하여야 하며, 지표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영역에서 행복과 관련된 측정분야는 체감성 및 현안성에 따라 물, 폐기물, 공기, 소음, 동·식물, 연안환경, 환경보건 등 총 7개로 분류하고 세분화된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환경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크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객관적 지표는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나 상황,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수치를 비교·제시하고, 주관적 지표는 환경에 대한 체감만족도와 환경문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 등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도민들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5) 일자리

① 행복에 있어서 일자리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삶의 만족지수는 OECD의 평균인 0.69를 크게 하회하는 0.45로 전체 조사대상 26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하여 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타난다(2006 OECD 사회지표). 그럼에도 일자리는 근로소득의 원천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회 내에서의 자아감, 개인적 자부심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실업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장애에 의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며(Clark and Oswald, 1994),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연관된 비용보다는 (실직에 의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 내에서의 자아감 혹은 개인적 자부심의 감소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

다(Winkelmann and Winkelmann, 1998). 이와 함께,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은 평생 지속되고 실직으로부터의 심리적 회복 가능성은 낮다는 측면에서 행복에 있어서 일자리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Dolan *et al.*, 2008). 특히, 실직 후에 다시 고용이 된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는 실직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ucas *et al.*, 2004).

② 어떻게 일자리를 측정할 것인가?

행복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나 분석의 범위는 단순한 생계수단으로써만 고려되기 보다는 근무환경이나 조건, 근로자의 만족도 등이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단순히 소득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상대적) 크기나 고용의 안정성 등이 분석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 사회 내에서의 자아감 실현, 개인적 자부심의 확립이 우선시 되는 경우 주관적 가치관에 기초한 사람들의 기대(expectation)와 일자리 여건 간 부합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충남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경제적 상황이나 인구 통계적 구성이 도내 지역 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행복관련 일자리 영역에서의 세부지표 선정 시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6) 건강 · 보건

① 행복에 있어서 건강 · 보건의 왜 중요한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로 건강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아프지 않고 신체적인 장애 없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본연적인 가치(intrinsic value)에 해당한다.⁶⁾ 건강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과 훈련 그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를 지닌다.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지닌 국가일수록, 평균 소득과 부, 고용률, 정치활동참가율,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34개 OECD 회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건강상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감소하는 삶의 만족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여덟 배만큼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서 건강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Boarini *et al.*, 2012). 헤도닉 적응(Hedonic adaptation)가설에 의하면, 생활여건에서의 변화를 겪는 경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복감은 과거의 수준을 회복한다. 하지만, Lucas(2007)는 두 국가의 개인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후천적으로 장기 장애(long-term disability)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적응은 아주 조금밖에 이뤄지지 않아 행복감의 감소는 상당히 큼을 보여준다.

6)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건강은 직장을 갖는 것과 함께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② 어떻게 건강·보건을 측정할 것인가?

건강·보건에 관한 지표가 이상적이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건강, 장애 또는 죽음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이나 조건들과 함께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다양한 건강에 대한 구성요소들과 건강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측정지표로는 흡연, 음주, 건강관련 지출을 투입지표로 고려할 수 있고, 자기보고에 의한 전반적인 건강상태, 장기 질환 유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과체중 혹은 비만을 결과지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건강·보건에 대한 지표는 투입지표로 보건/의료관련 집행예산, 의료시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지표로는 출생시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자살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7) 교육

① 행복에 있어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

행복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녕과 만족이라고 간략히 정의하면 교육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는 점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수준은 개인의 소득과 같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과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도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고 대학입학 경쟁이 치열한 이른바 학벌이 중요한 사회로서 교육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교육은 그 자체로 물질적 조건은 아니지만, 행복하기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물질적 조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물질적 조건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 그 자체가 인간 고유의 본성의 발현을 돕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을 증진시킨다는 면에서도 관련이 있다.

② 어떻게 주민참여를 측정할 것인가?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민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세부지표들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면, 교육 년수 1년당 추가소득과 같은 지표는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교육을 받다가 타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질적인 교육은 타 시도에서 받았으나 충청남도에서 직장을 얻는 경우와 같이 측정하기 복잡한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장서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도서관에의 접근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연령과 가정 내 역할에 따라서도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취학률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지만 아동의 부모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자녀의 유치원 취학률은 자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행복지수의 산출 기준이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지,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편, 평생교육 참여율과 같은 변수는 학생들이인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8) 주민참여

① 행복에 있어 주민참여가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에 있어 시민의 이익에 냉담하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요구나 선호에 충실히 대응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시민참여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복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와 사회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이며 권리의 하나로서 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또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정책에 대한 수용도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시민참여는 개인의 삶에 대한 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감각을 지니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는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 이외에도 시민참여는 공공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인다. 주민들이 내는 정치적 목소리는 충돌과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정책의 전망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정책결정자의 책임을 증가시켜 정책준수와 함께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어떻게 주민참여를 측정할 것인가?

주민참여는 민주사회에서 주민의 참여 형태 또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정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작동하는 기제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는 필수이지만 시민참여와 정부는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개념화하거나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측정지표의 매우 넓은 범위에 기인하며 모든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와 정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시민으로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하며 이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의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이익과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와 정부를 측정하기 위한 이상적 지표는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질에 대한 지표는 공공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있는가이다. 실제로 시민참여를 측정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정부의 질은 효율성, 활동범위, 모든 시민의 수용도, 개방성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

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자원봉사 및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의 공통적 형태는 투표, 청원,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적 생각과 가치의 공유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의 측정을 위한 또 다른 형태는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지와 시민들이 이러한 기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2. 지표개발(안)

1) 생활기반여건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생활 여건	인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허물기 실적 · 자가거주비율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주택전세가격지수(-) ·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비율(-)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시설 접근성 · 공동체 형성 촉진 위한 마을센터 이용정도 · 야간보행 두려움
	공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하수도보급률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비율 · 대중교통분담율 · 통근·통학 소요시간 · 교통사고 발생건수(-) · 사고사망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운행실적 · 도보로 10분 내 거리에 편익시설 배치정도 ·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 인도설치정도 · 주차장확보정도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율 · 1인당 공원면적 · 1인당 공원 및 녹지 지정면적 ·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 주택보급률 · 도시주택가격지수 · 1인당 주거면적 · 노후주택비율(-) · 과소필지비율(-) · 공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과의 접근용이성 · 주택만족도 · 거주지역 만족도 · 주거환경의 쾌적성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1인당 인구수 · 치안인프라 정비율 · 관련예산투자비율 · 소방서비스 정도 · 도난방지시설 구축정도 · 경찰서비스정도 · 범죄발생건수(-) · 강력범죄발생률(-) · 화재발생건수(-) · 집단식중독발생환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야간조망설치정도 · 범죄피해의 두려움(-) · 어둡고 후미진 곳의 분포정도(-)

2) 문화·여가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문화	문화 여가 시간	· 문화여가활동 시간 · 지출비중	· 문화여가활동 여부
	문화 자원 활동		· 문화에 대한 인식 · 지역 자원 파악 · 지역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자원 변화 · 문화만족도
	만족도 중요도		· 문화여가시간 만족도 · 문화여가시간 중요도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문화여가활동 중요도

3) 가족과 공동체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가족 공동체	가족 관계		· 가족접촉 빈도 · 가족관계 만족도 · 가족갈등(-) · 가족폭력(-)
	가족 형태	· 한부모가구 비율(-) · 독거노인 비율(-) · 소년소녀가장 비율(-)	
	일/가족 양립		· 부정적 일 가족 전이(-) · 부정적 가족 일 전이(-)
	사회적 관계	· 가까운 친구수 · 자살율(-)	·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참여	· 사회단체 참여율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신뢰

4) 환경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환경	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PM₁₀) 농도 ·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 · 통합대기형지수(CAI) 	· 불쾌감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질 · 호소수질 · 지하수질 · 상수도 보급률 · 공공하수처리율 	· 불쾌감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처리율 · 건설폐기물처리율 	· 불쾌감
	소음 진동	· 소음도	· 불쾌감
	동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 면적과 수 · 법정자연환경보호구역 비율 · 녹지면적 	· 아름다움
	환경 보건	· 환경오염 관련 질환 발생자수	· 건강위협
	연안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해양보전구역 지정 · 연안수질도 	· 불쾌감

5) 일자리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일자리	고용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 비농가 실업률 · 비정규직 비중 	·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근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임금총액 · 성별 임금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인관관계 만족도 ·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6) 건강·보건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건강·보건	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 ·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 흡연율과 음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 의료비 본인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7) 교육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교육	교육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취학률 · 학업 중단률(중도탈락률) · 고등교육 진학률 · 평생교육 참여율 · 직업훈련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시 자기선택 합치 여부 ·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전공 자기선택 합치 여부
	교육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 1인당 교육비(학교급별) · 사교육비의 가구소득 대비 비중 · 1인당 장서 수 · 통학거리(시간) · 가장 가까운 도서관과의 거리(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노출 정도 · 교우관계 · 교사와의 관계 · 학습 및 생활 상담에의 접근성
	교육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학습시간 · 사교육 시간 ·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만족도 · 취업가능성(일자리 이행과의 일치성) · 교육과 업무의 일치성

8) 주민참여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주민 참여	참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이해 · 참여방식 이해 · 참여기반 조성 여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영향도 · 참여경험 · 참여의사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지방자치단체 신뢰

V. 결론

1980년대 말 이후 현재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주제로 조명을 받고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많은 행복 측정치의 개발과 사용으로 이어졌다. ‘행복’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행복에는 물질적 풍요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많은 결과들로 인해 행복지표의 개발이 많은 국가와 도시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에 비해 여러 지표 측정 결과 뒤처지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는 이제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의 행복정책들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전략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차원에서도 행복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이루로 향후 충남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연구의 진행은 선행연구의 검토와 워크숍 등을 통해 지표의 (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워크숍을 통해 지표의 최종 선정과정을 거친 후 실제 측정과 이를 바탕으로 행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비록 충남에서 행복이라는 화두에 새로이 시작하는 연구이지만 향후 타당성이 입증된 행복지수를 사용하여 누적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사회적 현상 및 변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어 분석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충남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